

임실군, 봉어섬 포토존 조성

꽃양배추·백묘국·겨울팬지 등 총 3만2000여본 심어 연말연시 맞아 눈사람·산타·대형트리 조형물 연출

연말연시를 맞아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이 겨울꽃 세상을 선사한다. 군에 따르면 임실군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이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겨울꽃 식재 및 겨울 포토존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봉어섬 생태공원에 겨울을 알리는 꽃양배추와 백묘국, 겨울팬지, 청보리 등 총 3만2,000여본을 심었다. 이들은 내한성이 강한 수종으로 삭막한 겨울 속에서도 활기 있고 아름답게 피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꽃양배추와 보리를 이용한 옥정호 출렁다리 입구 메인 포토존은 번

영'이라는 꽃말의 보리와 '축복'이라는 꽃말의 꽃양배추가 합쳐져 행운의 네 잎 클로버 모양으로 재탄생했다. 방문객들에게 다가오는 감진년의 큰 행운이 있길 바란다는 뜻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포토존을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형트리와 눈사람, 사슴, 산타 등의 조형물을 통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봉어섬 생태공원은 지난 가을에 국화꽃과 코스모스 및 구절초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군은 봉어섬 생태공원에 기존 수목

을 이용한 산타 장식을 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경관을 더하기 위하여 수목에 설치한 잠복소는 미관 개선 및 따뜻함을 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사계절 경관 연출을 위해 유지관리 및 보완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 내부 보수공사로 인하여 임시 휴장한다. 심 민 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옥정호 수변과 어우러진 봉어섬 생태공원에서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섬진강 도로변에 힐링 수목길을 조성한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군, '다시찾는 순창' 조성

다음달 중순까지 섬진강 도로변 일원 지역특화 조림사업 실시

순창군이 아름다운 섬진강 도로변 일원에 수목길을 조성해 '다시 찾는 순창'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군에 따르면 동계 구미마을, 적성 내월교 등 일원에 12월 말까지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조림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조림사업으로, 군은 동계면 장군목에서 섬진강 체육공원 2.2km 거리를 포함해 인계·유등 주변 산림 2.9ha에 총 4억여 원을 들여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식재 수종으로는 나무줄기 자체가 넓게 퍼져 친환경 그늘막 역할을 하는 대왕참나무와 사계절 아름답고 꽃의 색채와 나뭇잎이 볼보이는 편백나무, 청단풍, 산딸나무 등이 식재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섬진강길 일원의 자전거 도로가 유명인데, 이번 대왕참나무 식재로 더욱 쾌적하고 시원한 자전거 도로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국 라이더들의 방문이 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의 섬진강 자전거길은 섬진강 물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간에 속한다"며 "이번 조림사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순창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훈풍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 자전거길은 물줄기를 따라 놓인 기암괴석도 감상할 수 있어 천혜의 수석 공원으로 매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인근에는 최근 순창에서 관심이 쏠리는 용굴산 하늘길을 비롯해, 체계산 출렁다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주민목소리 청취' 명예감사관 간담회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순창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해 행정에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순창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해 행정에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읍면 명예감사관, 행정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지난 2004년 순창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해 매년 읍면 명예감사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군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읍면 명예감사관들은 일상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 마을내 경로당 확대, 속도감있는 행정 처리 등을 바란다

특히, 감사관들은 지난달 아동행복수당이 6세에서 17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향후 순창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관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7270농가 대상 162억원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7,270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6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일원화한 제도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4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5~9월 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점검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지었다.

특히, 군은 신청,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자격 검증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남원 주생면,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입주자 모집

남원시는 주생면의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입주자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습농장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남원시에서 임대·운영하는 시설로, 이번에는 9세대(원룸형 3세대, 투룸형 6세대)를 모집 중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1개월간 거주하게 되며, 귀농귀촌센터에서 영농 재배 실습,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 임대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남원시청 농촌협력과(063-620-636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남원시 농촌협력과장은 "영농교육은 물론 남원시에 대한 더 많은 정보수집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시 대피와 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감지기와 비상벨의 기능이 함께 있는 장치로 배터리로 작동하며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 소방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하는데, 소화기의 내용연한은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며, 누이 슬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다면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배터리와 작동여부 등을 확인해 화재 발생 시 미·오작동을 예방해야한다. 소재실 서장은 각 가정에서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임실군, 시설물 안전관리수준 진단 결과 95점 도내 1위

국토안전관리원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소관·관리하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대상 시설 1,653개소에 대한 2022년도 제도 이행사항을 진단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설물 안전관리지수(PSI) 산출법에 따라 산하기관(시·군)별 안전수준 평가를 했다. 시설물 안전관리지수(PSI) 산출법에

는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수립 20점,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내 안전 점검 법정 기한 준수 10점,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수립의 적정성 10점,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50점,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15점, 소관 시설물 안전 등급 20점이다. 합계 125점 중에 임실군은 95점으로 14개 시·군 중 1위로 평가를 받았다. 임실군은 2023년 기준 제1종 시설물

37개소, 제2종 시설물 18개소, 제3종 시설물 53개소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대상 시설은 총 74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정밀안전점검 및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관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